

제네바 컨시스토리(The Genevan Consistory)¹⁾

—칼빈의 신학과 목회의 접목—

이정숙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강사, 교회사학

I. 시작하는 말 : 제네바 컨시스토리에 대한 새로운 관심

로버트 킹던(Robert M. Kingdon) 교수는 일반 사학자였으나 1980년에 미국 교회사학회에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취임강연에서 교회사 연구의 한 새로운 방향으로 교회사 연구가 제도나 기관을 조사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창했다. 물론 이러한 작업은 종전의 교리사적인 접근보다는 자료 수집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몇몇 신학자나 교회 지도자 중심의 교회 역사 기술을 벗어나 신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영향을 직접 간접으로 받고 살았던 '평신도의 삶'을 더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역사 기술은 역사의 내용을 다차원적으로 볼 수 있게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리나 사상만이 아닌 일상의 삶을, 성직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도, 남자만 아니라 여자

* 본 논문은 한국교회사학회 제 68회 정기발표회(2000년 6월 9일-10일)에서 발표되었던 논문이다. 본 논문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유익한 토론에 임해 주신 교회사학회 회원 제위께 감사를 드린다.

1) 제네바 컨시스토리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당회라고 번역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는 16세기 컨시스토리의 설립 동기와 활동 내역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점이 있어서 굳이 따로 번역하지 않고 제네바 컨시스토리로 칭하여 그 본래의 뜻을 살리고자 한다.

도 포함한 역사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 연구는 사실상 이미 일반 사학자들이 사용하던 사회사적 연구 방법론으로 이제 교회사 연구에도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져야 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킹던 교수는 특별히 제네바 컨시스토리 회의록(the Registers of the Geneva Consistory)의 탁월한 보관 상황에 대하여 교회사가들의 주의를 환기시켰고, 제네바 컨시스토리 연구를 통하여 칼빈 연구뿐만 아니라 16세기 유럽 연구가 진일보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지금까지 알려진 제네바 컨시스토리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19세기 중엽에 제네바 학자 크레머(Frédéric-Auguste Cramer)에 의해서였다. 그는 실제로 대부분의 컨시스토리 회의록을 읽고 회의록 전사(transcripts)를 마련하여 *Notres extraites des registres du Consistoire de L'Eglise de Genève, 1514-1814*(Geneva, 1853)를 출판했다. 그런데 그는 전체 사건의 5퍼센트 정도만을 transcription 한 것이고 그 5퍼센트도 킹던 교수에 의하면 곳곳에서 문장의 일부 구절이나 줄을 생략하고 있어서 정확성에 문제가 있고 각 사건의 성격이 일반성을 결여하고 있어 당시의 일반적인 삶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부적절한 자료라는 것이다. 후에 쾰러(Walter Köhler)는 *Zürcher Ehegericht und Genfer Konsistorium*(Leipzig, 1932-42)을 출판했지만 그의 통계는 크레머의 연구에 기초하고 있어 “완전히 무가치하다”라고 킹던은 결론짓고 있다. 이후로 컨시스토리 연구는 한동안 뜸하다가 몬터(E. William Monter)에 의해서 다시 제기되었다. 그는 칼빈의 제네바(*Calvin's Geneva*)에 이어서 출교를 중심으로 보는 컨시스토리 연구를 발표하였는데²⁾ 이 연구는 최근까지 제네바 시의 출교에 관해 연구할 때 사용되어진 유일한 자료였다. 몬터의 연구는 11년이라는 긴 기간을 다루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가 판독하고 연구한 사건의 양이 소수라는 단점이 있다. 그렇지만 그는 1555년부터 1570년 사이에 출교된 자들의 명단을 따로 기록한 문서(master list)를 참조하고 있어서 그의 통계의 신빙성을 보충시키고 있다.

이러한 컨시스토리에 대한 일반적인 무지와 무관심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던 킹던 교수는 자신이 직접 그의 제자들과 함께 컨시스토리 회의

2) "The Consistory of Geneva(1559-1569)," In *Bibliothèque d'Humanisme et Renaissance*, XXXVIII, Geneva, 1976, 467-484.

록 읽기(transcription)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³⁾ 컨시스토리 회의록은 16세기 기록 문서로서는 매우 탁월한 보관상태를 유지해 현재 제네바 고문서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킹턴과 그의 제자들의 1차 작업은 중세 불어 필기체(paleography)를 읽고 그것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인쇄체화시키는 것이었고 2차 작업은 속기로 기록되어 생략되어진 이름이나 상황을 보충하고 고대 불어로 기록된 회의록의 철자법 문제를 보완하는 불어판 critical edition을 출판하는 것이었다. 3차 작업은 영어 번역판을 출판하여 독자층의 확대를 꾀하는 것이었다. 현재까지 1542년 1543년의 critical edition이 출판되고 최근(2000년 5월)에 이를 영어로 번역한 *The Genevan Consistory Registers*가 Eerdmans 출판사에 의해 출판된 상태이다. 킹턴 교수와 그의 제자들의 이러한 작업은 중세 필기체를 읽을 수 없는 사람들도 컨시스토리 회의록을 읽을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회의록 자료를 근거로 하여 당시 제네바 사회상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재미있는 연구를 계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어 칼빈의 제네바 연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⁴⁾

컨시스토리 연구는 좁게는 16세기 평신도들의 삶을 통하여 칼빈의 신학이 어떻게 현실에서 구체화되었는지를 알려 준다. 또 넓게는 16세기 이후 개신교회들의 성도의 훈련과 권징(church discipline)제도를 이해하는 기초 자료가 된다. 교회의 권징은 인간의 선행을 구원의 조건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개신교 안에서 발생 가능한 개신교도들의 “도덕률 폐기론의 유혹”(antinomian temptation)을 경계하고 규제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칼빈은 이러한 권징제도를 주님께서 그의 교회에게 허락하신 유익한

3) 킹턴 교수는 1987년부터 당시 H. H. Meeter Center for Calvin Studies에 보관되어 있던 마이크로 필름을 갖고 해독 작업을 시작했다. 이 작업은 Meeter Center와 Wisconsin-Madison 대학교의 지원으로 가능했다.

4) 컨시스토리 연구를 진행하면서 킹턴 교수는 컨시스토리에 대한 여러 편의 논문과 책을 썼는데 그 중 *Adultery and Divorce in Calvin's Geneva*(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는 컨시스토리를 잘 소개하고 있는 서문과 함께 칼빈의 제네바 연구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그의 제자인 Jeffrey R. Watt의 “Women and the Consistory in Calvin's Geneva”, *Sixteenth Century Journal* XXIV (1993) 역시 컨시스토리 연구의 결과물로서 주목할 만한 것이다.

것들 중 하나(one of the most profitable and salutary things which the Savior vouchsafed to his church)로서 이해했다. 이어서 그는 이러한 제도가 로마 가톨릭교회에 의해 가장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한탄하기도 했다.⁵⁾

현대에 와서 개신교회가 권징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권징의 대상이 되는 목회자들이나 신도들 모두 권징기관의 권위에 순종하기가 어렵고 설사 권징이 실시되었다 하더라도 권징 대상자들이 쉽게 타교회로 교적을 옮기고 권징을 숨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권징의 실제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이 아니냐는 회의론이 만연되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컨시스토리에 대한 관심이 새로워지고 회의록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활발해진 것은 교회사가들에게 “칼빈의 제네바”에 관한 새로운 자료 제공뿐만 아니라 현대 개신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성화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보여진다.

II. 제네바 컨시스토리의 설립과 조직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1542년 칼빈의 주장에 의해 만들어진 상담 및 교육, 권징기관이며 칼빈의 신학이 구체적인 목회의 장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칼빈은 1536년부터 1538년까지 제네바 시 개혁의 의도를 좌절당하고 3년간의 망명생활 후 제네바로 다시 돌아오면서 처음부터 제네바 시의 성도의 훈련은 교회가 일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여러분들의 목사로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생활의 무질서를 고치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신실한 마음으로 저를 망명 생활에서 다시 부르신 것이라면, 여러분 가운데 만연하고 있는 범죄와 방탕함을 제거하십시오...제 생각에 복음의 제일 큰 적은 로마의 교황이나 이

5) "Articles of 1537", in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trans. J.S.K. Reid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4), 51.

단이나, 미혹케 하는 자들이나 독재자가 아니고 나쁜 기독교인들입니다... 선행을 겸비하지 않은 죽은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사악한 생활이 진리를 가장하고 행동이 말을 부끄럽게 한다면 진리 자체는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이제 저로 하여금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고장을 버리고 떠나 새로운 망명지에서 제 고통의 쓰라림을 삭히게 하시든가 교회 안에 법이 엄격하게 지켜지도록 해주십시오. 순수한 훈련(discipline)이 재건되게 하소서.⁶⁾

위에서 나타난 것처럼 교회의 성도 훈련(혹은 권징)에 대한 칼빈의 태도는 매우 단호하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1541년 교회법(Ordonnances Ecclesiastiques)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곧 칼빈이 제네바 컨시스토리를 설립하게 된 근거가 된다. 1541년 교회법 초벌에는 어떻게 장로가 뽑혀야 하며 제네바의 목사들과는 얼마나 자주 만나 어떻게 제네바 시의 성도들의 생활을 살펴볼 것인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같은 해에 이 법은 개정을 거쳐 공포되어 제네바 교회의 교인들에게 기독교인의 생활의 기준점을 제시하게 되었다.

컨시스토리는 목사들과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 서기와 소환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필요하다면 추가로 더 만나기도 하였다. 목사들의 경우는 제네바 시에 있던 목사들이었고 장로들은 시의원들 중에서 매년 컨시스토리의 일을 위해 임명된 사람들이었다. 교회법에 의하면 컨시스토리에서 활동할 장로들은 “소의회(The Little Council)에서 두 사람, 60인 의회(The Council of Sixty)로부터 네 사람 그리고 200인 의회(The Two Hundred Council)에서 여섯 사람을 뽑되 선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들로 책망할 것이 없고 의심할 것이 없는 자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적인 신중성을 가진 자”⁷⁾라야 했다. 또한 이들은 각 의회와 또 한 도시의 각 지역을 효과적으로 대표하는 사람들이어야 했다. 선발의 절

6) Theodore Beza, *Life of Calvin*, 인용문은 필자 번역.

7) *Ordonnances Ecclesiastiques*, in *Registres de la Compagnie des Pasteurs de Geneve aulemps de Calvin*, vol. I (Geneve : Librairie Droz, 1964), 2.

차는 소의회가 적당한 후보를 선출하여 200인 의회에 제출하면 200인 의회는 이를 검토하고 적합성 유무를 확인한 후 그들을 불러 서약을 하게 하고 업무에 들어가게 한다. 이들의 주 업무는 제네바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잘 살피고, 그릇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친구처럼 권면하고, 목사회(The Company of Geneva Pastors)에 이 사실을 보고하여 함께 형제에 훈련 혹은 권징을 실행한다. 목사들은 컨시스토리의 일이 목사의 일로 간주되어 무보수로 일한 데 반해 장로들은 컨시스토리 회의에 참석한 만큼 연말에 사례를 받았다.⁸⁾

목사와 장로 외에 직원의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은 소환관(officer)과 서기였다. 소환관은 컨시스토리 자체가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람들을 소환하는 법적 권리를 부여받고 일하는 직원이었다. 소환관은 컨시스토리 회의에 출석한 만큼 사례를 받았다. 서기는 컨시스토리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했는데 이 회의록은 즉석에서 속기로 적혀졌고 그 이후에 다시 옮겨 적지는 않았다. 이 서기는 직업상 전문 공증가이기도 했다.

이 두 사람 외에는 시의회에서 파견된 행정 장관(Syndics : governing magistrates) 중 한 사람이 컨시스토리 회의의 의장이 되어서 사회를 보았다. 이 행정 장관은 제네바 시의회가 교회의 자율권을 침해한 가장 구체적인 예로 칼빈과 당시 제네바 목사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사실상 1541년 교회법에는 행정 장관의 의장 역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1561년 새로 공포된 교회법은 이 제도의 남용과 폐단을 지적하고 최고 의원의 컨시스토리 참여는 장로의 자격으로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⁹⁾

Ⅲ. 제네바 컨시스토리 구성원에 대한 칼빈의 입장

앞서 언급한 행정 장관의 제네바 컨시스토리 참석에 대한 칼빈의

8) Robert M. Kingdon, *Adultery and Divorce in Calvin's Geneva*, 188.

9) OS II, 362. 필자의 논문, *Excommunication and Restoration in Calvin's Geneva*, Ph. D. Dissertation(Princeton :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1997), 73-86.

강력한 반대는 제네바 컨시스토리의 구성원에 대한 칼빈의 신학에 근거하고 있다. 칼빈의 입장은 중세 교회나, 당시 제네바와 인접해 있던 쥐리히의 쾰링글리의 입장과는 달랐다. 이 문제는 결국 마태복음 18:17에 나오는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종전의 중세 교회는 이 “교회”를 성직자 중심으로 이해하고 성직자 중심의 성도 치리기관을 운영한 데 대하여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은 이를 반대하면서 “교회”는 신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이 일체 히 로마 가톨릭의 제도를 비판하였다 하여 그 대안이 다 일치된 것은 아니었다. 윌리엄 틴데일(William Tindale) 이나 존 모렐리(John Morély)는 전 교인이 권징과 해벌(뉘고 푸는)의 결정에 동참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식의 ‘성직자 독점’이나 ‘전교인의 치리권 행사’ 둘 다 극단적인 제도라는 데 일치하고 대표제를 주장한다. 이제 남은 문제는 누구를 대표로 하겠느냐는 것이다.¹⁰⁾ 대표의 자격에 대하여는 두 개의 대별되는 주장이 있었다. 즉 쾰링글리나 루터교도, 영국 국교도들로 대표되는 개신교 집단은 이 문제에 대하여 군주의 권위와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데 반하여 칼빈과는 처음부터 교회와 정치권을 분리하고 성도의 권징은 교회의 절대적인 권한임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쾰링글리의 예를 들어 보자. 쾰링글리는 “교회”가 기독교 군주들이라고 주장하고 군주들, 즉 당시 정치권이 성도의 권징을 담당하게 했다. 쾰링글리는 교회의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는 일을 한다면, 기독교 군주들은 그들이 가진 검을 이용하여 죄인들을 벌하여 도덕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고 했다. Frauenfeld Synod(1529)에서 쾰링글리는 성도의 출교에 관한 교회의 자율권 경향성에 대하여 반대하면서 교회는 시의회

10) Elsie A. McKee, “Calvin, Discipline, and Exegesis,” *Ministry in the Life of the Reformed Church Today: Papers Presented at a Colloquium in Honor of John Hadden Leith*, ed., Charles E. Raynal(Davidson: Davidson College Presbyterian Church, 1991), 3-4.

의 동의없이 누구도 출교할 수 없다고 말한다.¹¹⁾ 쾰링글리의 입장은 교회나 성만찬은 죄인들의 합당치 못한 참여에 의하여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¹²⁾ 굳이 수찬 정지를 통하여 죄인들의 참여를 제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출교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로 나타났던 수찬 정지에 대하여 쾰링글리는 매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쾰링글리의 이러한 주장은 하인리히 불링거에 의하여 더욱 발전 강화되어졌다. 불링거는 기본적으로 출교와 성만찬은 다른 목적, 즉 출교는 죄인을 벌하는 것이고 성만찬은 죄인을 위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 둘을 함께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죄인들은 이미 그들의 벌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힐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에 죄인이 성찬의 상(table)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당한다면 주의 피는 헛되이 흘러신바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기독교 군주에게 성도의 훈련을 맡기고 죄인들을 성찬에 참여시키자는 쾰링글리의 주장은 일부 종교개혁자들에게는 비성서적인 것이었다. 사실상 첫번째 칼빈적 견해를 가졌던 개혁자로 알려진 요하네스 오코람파디우스(Johannes Oecolampadius)는 교회가 처음부터 치리의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출교의 목적은 최대한으로 교회를 정화하고 개개 죄인들의 삶을 수정해 주는 데 있기 때문에 교회가 출교를 맡아야 하고 죄인들이 성찬에서 제외되는 것도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다. 그는 목사, 군주, 그리고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 중 선거를 거쳐 12명의 감독 혹은 장로들로 이루어진 교회 법정을 구상했었으나 바젤 시의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바젤 시의 교회 법정의 감독은 목사를 제외하고 시의회 의원이나 평신도 중에서만 피선된 사람들로 형성되었다.

망명시절 칼빈이 영향을 많이 받은 마틴 부처(Martin Bucer)는 이 문

11) Köhler, 220.

12) Emil, Egli, et al., eds., *Huldrych Zwingli's sämtlich Werke* (Berlin, Leipzig, Zürich, 1905), 9 : 456 ; Roger Ley, *Kirchenzucht bei Zwingli, Quellen und Handlungen zur Gerichte des schweizerischen Protestantismus*, 2 (Zürich, 1848), 71-76, 103, 125, quoted in J. Wayne Baker, "Church Discipline or Civil Punishment," 7.

제에 관한 한 여러 차례의 수정 보완을 거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오코람 파디우스의 영향을 받아 교회와 시의회 의원이 대표하는 치리기관을 만들려고 하였다. 그러나 부처의 이러한 계획은 스트라스부르크 시의회에 의하여 수정되면서 치리과정에서 목사가 제한적으로 관여하고 시의회가 출교권을 행사하도록 결정되게 된다.¹³⁾

쯔빙글리의 신학적 입장에 대하여 반대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1530년경 스위스 연방의 개신교 도시들은 쯔빙글리식의 제도를 선호하여 이를 채택하고 있었고 제네바 역시 이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사실상 시의회 입장에서는 쯔빙글리식의 제도는 시의회 권력을 확장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투입된 칼빈이 교회 중심적 권징제도를 정착시키려 했을 때 시의회와의 마찰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칼빈은 성도 권징의 기관인 “교회”를 성직자와 평신도의 연합모임이어야 한다고 이해했다. 칼빈은 어떤 군주도 교회가 전담하는 일에 군주의 자격으로서는 참석할 수 없다고 보았기에 행정 장관의 참석을 극구 반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칼빈의 이러한 생각은 몇 차례에 걸쳐 발전되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1536년판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출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출교의 권한이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열쇠의 권세(the power of keys)를 다루면서(마 16 : 9과 18 : 17 이하) 치리기관에 대하여 자세히 말하고 있다.

…교회는 출교하는 자를 묶는다. 이것이 그를 영원한 멸망과 좌절로 내던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출교가 그의 삶과 도덕성을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정죄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경고받는 셈이 된다. 교회는 그를 성찬에 받아들임으로써 풀어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풀어줌이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구도 ‘교회의 결정’(the judgment of the church)을 고

13) Amy Nelson Burnett, *The Yoke of Christ : Martin Bucer and Christian Discipline*, vol. 26. *Sixteenth Century Essays and Studies*(Ann Arbor : Edwards brothers, 1994), 69, 71.

집스럽게 경멸할 수 없다. 아니면 '신자들의 투표에 의하여' (by the vote of believers) 자신이 정죄당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주께서 증거하시기를 신자들의 이같은 판단은 그의 선포와 같은데 교회가 땅에서 하는 것은 하늘에서 인정을 받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범죄자들을 정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는 자를 은혜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잘못하거나 하나님의 심판과 불일치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확실하고 지상에 속한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늘의 신탁(oracle)로서만 판단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하나님)는 교회를 부르시는데 머리를 밀고, 린넨천의 옷을 입은 소수(로마 가톨릭 성직자들—저자 주)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모이는 믿는 자들의 모임을 부르신다.¹⁴⁾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에 칼빈은 권징이 소수 성직자 중심이 아니라 교회 회중 전체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교회의 결정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결코 틀림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절대적 신뢰를 표명하고 있는 구절은 자못 인상적이다. 사실 칼빈은 누구보다도 인간의 부패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고 지상 교회의 한계와 불완전성에 대하여 통감하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이때 칼빈의 입장은 자신의 주장을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제도와 더 강렬한 대조 속에서 이야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단순한 강조 용법으로 볼 수 있겠다. 칼빈의 이러한 의도는 다음의 글에서 다시 선명하게 나타난다.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 묶고 푸는 직을 그의 교회에 주실 때 그는 존경하는 높은 모자가 달린 가운을 입거나 두 개의 뿔이 달린 사람의 권위에 힘입어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중략...오히려 그는 악한 사람의 사악함은 출교의 훈련을 통하여 교정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명하신

14) *Institutes*(1536) : OS I, 187 ; Battles, 145.

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말씀의 권위로 교회의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¹⁵⁾

이상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칼빈은 그의 초기 작품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출교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강조하고 마태복음 18 : 17절에 나타난 권징 기관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확실히 하여 성서적 권징 제도를 회복할 것이라는 개혁의지를 공고히 한 것으로 보여진다. 1536년판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칼빈은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교회”가 평신도를 포함한 온 교회임을 분명히 하였으나 이 교회가 재세례파와 일부 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온 회중을 포함하는 교회인지, 대표제를 통하여 교회의 역할을 하게 하는지에 대하여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1537년 그는 그가 말하는 교회는 회중을 대표하는 일부임을 분명히 하고 선한 삶을 살고 신자들에게서 좋은 증거를 얻은 사람으로 제네바 시의 각부분에 골고루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로 정하여 제네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이들은 목사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일하고 그들의 형제애적인 권면이 사람들을 회개로 이끄는 데 성공하지 못할 때는 “교회”에 보고하고 목사들은 이 사건의 경과를 회중에게 알림으로써 출교를 선언하게 된다고 말한다.¹⁶⁾ 1541년에 교회법을 통하여 컨시스토리의 구성원은 이미 밝혀졌지만, 1543년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교회”는 장로들의 모임(the senate of the presbyters)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고 있다.¹⁷⁾ 칼빈은 더 나아가 교회내의 나머지 사람들의 건설적인 역할에 대해서 말하기를 잊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5 : 1에 나타난 출교의 예를 들어 바울이 말하는 출교는 장로들만의 결정이 아니라 교회의 지식과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한다. 교인들은 출교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증인과 보호자가 되어 어느 과정도 소수에 의해 독단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15) *Institutes* (1536) : OS I, 189 ; English, 147.

16) OS I, 372-373 ; English, Reid, 52.

17) OS 5, 201.

수 없도록 지켜본다는 것이다.¹⁸⁾ 1555년에 출판된 공관복음서 주석에서 또 1559년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교회”의 대표적 성격이 산헤드린과 유사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¹⁹⁾ 칼빈의 이러한 생각은 제네바 컨시스토리에 잘 반영되었는데 행정 장관의 의장직을 거부함으로써 컨시스토리는 교회의 독립적 권징기관임을 분명히 했고, 목사와 평신도 대표가 마태복음 18 : 17의 “교회”가 되어 성도들의 훈련과 권징을 담당하도록 했다.

IV. 제네바 컨시스토리의 역할

로버트 킹던 교수는 제네바 컨시스토리의 기능은 심리 법정(a hearing court), 강압적인 상담 봉사기관(a compulsory counseling service) 및, 교육기관(an educational institution)의 역할을 담당했고 또한 이러한 컨시스토리의 활동은 당시 사회통제의 기능을 한 바 있다고 정의했다.²⁰⁾ 킹던의 이러한 주장은 16세기 제네바 시의 사회상이 칼빈의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하여 괄목할 만하게 변화되었던 것을 고려할 때 의미있는 주장이다. 몬터의 연구에 의하면 제네바 시의 범죄률은 칼빈과 그의 동료 목사들(주로 프랑스계 이민자들)의 등장 이후로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칼빈은 이 제네바 컨시스토리를 통해서 제네바 시가 구교적 신앙과 그 행위에서 벗어나 개신교 원리(the Protestant principles)에 입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도와고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성도의 훈련은 단순히 성도들의 삶을 효과적으로 통제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칼빈은 성도의 훈련과 권징(church discipline)을 교회의 표지(*notae ecclesiae* : the marks of the church)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성도의 표지”(*notae fidelium* : the marks of the christians)²¹⁾에 포함하고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18) *Institutes*, 4.12.7 ; OS 5, 218.

19) 마태복음 18 : 18 주석, CO 45, 516 ; *Institutes*, 4.11 ; OS 5, 196.

20) Robert M. Kingdon, *Adultery and Divorce in Calvin's Geneva*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4.

21) 성도의 표지는 칼빈이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논하면서 다루고 있다. 신자들은 어디까지나 지상에 속한 보이는 교회만을 알 뿐

성도의 훈련과 권징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범된 성도의 삶을 유지해 나가도록 도우는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컨시스토리가 성도의 훈련과 권징을 담당하기로 하여 출범하지만 그 활동이 적극적인 효과를 거두게 된 것은 1555년 이후였다. 1555년은 칼빈의 제네바 목회에 중요한 전기를 가져다 준 해였다. 그 해 1월에 베르뜰리에(Berthelier) 사건이 종결되면서 컨시스토리의 출교와 해벌(회복)권이 재확인되고, 나아가 2월 선거에서 칼빈을 따르던 사람들이 정치적 대세를 장악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1556년은 칼빈주의를 확장시키는 구체적 제도로서 일반 심방제도(*general visitation*)가 채택되어 컨시스토리의 활동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1556년 이전에 제네바 시에 심방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특정 집단, 즉 병자, 혹은 교도소 심방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이제 일반 심방이 시행되면서 개신교도로 개종한 평신도들의 삶을 좀더 가까이에서 살펴보는 감독의 기능이 강화되게 되었다. 제네바 목사회 회의 기록에 의하면 일반 심방은 신자들을 더 알아 가고, 성만찬이 죄인들의 무분별한 참여로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듣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²²⁾ 일반 심방제도의 결과는 컨시스토리의 활동과 직결되었다. 일반 심방을 통해서 제네바 목사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일상 삶 가운데 적용하는지를 가까

이다. 그러므로 누가 예정을 받은 자인지는 철저하게 가려져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참신자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표지를 제공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의 표지인 것이다. 성도의 표지에는 “신앙의 고백, 삶의 모범, 성례전예의 참여”(confession of faith, example of life, and partaking of the sacraments) 등이 속한다. 여기에서 첫번째와 세 번째는 교회의 표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교회가 한 것을 성도들이 받고 반응하는 것이다. 두 번째, 삶의 모범은 교회의 표지에는 속하지 않지만 교회에 속한 신자들이 성도로서, 신앙의 표현으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 결국 삶의 모범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써 교회의 권징은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성도의 표지에 관해서는 Wilhelm Neuser, “Teaching on the *notae fidelium*”, in *Probing the Reformed Tradition*, ed. Elsie A. McKee and Brian G. Armstrong과 Elsie A. McKee, *Elders and the Plural Ministry*, (Genève : Librairie Droz, 1988), 25f., 그리고 본인의 논문 29-34을 보시오.

22) RCP., vol. 2, 66.

이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창을 얻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일반 심방은 컨시스토리가 처리해야 할 사건의 양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킨 계기가 되기도 했다.

1556년에 등장된 또 다른 제도는 컨시스토리가 증언을 들을 때 증인들에게 선서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²³⁾ 교회법정 구실을 했던 컨시스토리는 실제로 가짜 증언 때문에 골치를 앓았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555년 1월 17일 끌로데(Claude)와 그의 부인은 잔느 델레아발(Jeanne Deleaval)을 간음으로 고발했다. 끌로데의 부인은 잔느가 남편 아닌 남자와 자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었다. 이에 항변한 잔느는 자신이 같이 잔 남자는 남편이었음을 주장했다. 컨시스토리는 후에 끌로데가 미움 때문에 잔느를 고발했다는 것을 밝히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²⁴⁾ 이 사건은 비교적 간단하게 끝났지만 경우에 따라서 증언 진실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컨시스토리는 선서에 따른 증언의 필요성을 느꼈다. 증인들의 선서제도를 채택한 후 컨시스토리는 미심쩍은 증언들이 있을 경우 소의회로 보내어 선서를 하고 오도록 했다.²⁵⁾

1555년과 1556년 컨시스토리는 각각 55회, 57회 모였다. 전체적으로 목사들의 참여도는 매우 높았다. 칼빈 역시 여행이나 병환을 제외하고는 다 참석하여 1555년에 87퍼센트, 1556년에 74퍼센트라는 높은 참석율을 보였다. 이에서 컨시스토리의 운영과 결정과정에 제네바 시의 목사들과 칼빈의 영향력이 컸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1. 출교(Excommunication)

제네바에서의 출교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출교와는 차이가 있다. 출교는 권징 혹은 치리의 마지막 단계로 이해되고 그 효과가 심각하지만,

23) RCP., vol. 2, 68.

24) Consistory, IX : 5, 206.

25) 컨시스토리에서의 선서가 법제화되기 전 해인 1555년에 칼빈은 십계명에 대하여 설교했다. 십계명 중 제9 계명 설교에서 칼빈은 진실을 말하는 것은 이웃에 대하여 마땅히 행할 도리임을 강조했다.

칼빈의 제네바에서의 출교는 지금의 수찬정지에 가까운 일시적 분리 또는 징계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회의록에서 출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그대로 사용한다. 출교가 적용되었던 죄는 공적이고 거침돌이 되는 죄, 범죄나 수치스러운 행위들, 고집스러움 등이었다. 칼빈은 죄를 정죄할 때 공공성(publicity) 여부와 교회에 끼친 유해한 영향(its harmful impact on the church)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²⁶⁾ 비밀스러운 죄가 발견될 경우에는 마태복음 18 : 15-17의 절차에 따라 권징을 시행하되 고집스러운 사람들의 경우는 죄의 내용과 경중에 따라 구두 권면 또는 출교를 적용시킨다. 공적인 죄는 권징의 첫번째, 두 번째 단계가 생략되고 죄인들은 교회 법정으로 불려와서 죄에 따라 권징을 받았다.

출교된 자들은 일차적으로 성만찬과 세례(대부가 되는 것 포함)에서 제외되었으나 설교를 더 많이 듣도록 명령받았다. 성례전에의 제외(sacramental exclusion) 외에 사회적 제외(social exclusion)도 있었는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문서는 발견하기 어렵다. 회의록을 통하여 결혼이나 '긴밀한 거래'에 제약을 받았음은 확인된다. 이제 통계 자료를 통해 1555년과 1556년 제네바 컨시스토리의 출교 현황을 알아 보자. 다음은 1555년과 1556년에 컨시스토리로 소환되어 온 사람들의 수이다.

[도표 1]

연도	소환된 사람수	남자(%)	여자(%)
1555	1234	837(68%)	396(32%)
1556	1518	924(61%)	594(39%)

위의 숫자는 동일 인물이 컨시스토리에 세 번 불려 오게 되었다면 세 번으로 계산된 것으로 컨시스토리가 매 회합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반면 사건의 경우는 특정 사건이 끝날 때까지 한 사건으로 취급되었다.

26) *Institutes* 4. 12. 6.

〔도표 2〕

연도	총사건수	출교사건수(%)
1555	420	77(18.3%)
1556	730	142(19.5%)

〔도표 3〕

연도	전체수	출교자수	남자(%)	여자(%)
1555	1234	92(7.5%)	59(64.1%)	33(35.9%)
1556	1518	169(11.7%)	103(60.9%)	66(39.1%)

이상의 도표 3에서 보면 제네바 컨시스토리에 불러온 사람이 많았지만 실제로 출교된 사람이 의외로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56년에는 전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출교를 당하여 출교를 통한 제네바 시 정비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성별 구분으로 보아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출교된 것이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당시 남녀 인구 비율상 남자의 인구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1556년에 출교가 증가한 것은 일반 심방의 결과로 제네바 시 교인들의 문제가 더 많이 컨시스토리에 들어나게 된 이유도 있고 1555년 1월 이후로 컨시스토리의 활동이 전반적으로 더 활발해졌음도 한 이유로 보인다.

컨시스토리에 불러온 사람들, 또는 출교된 사람들의 죄목은 다양하다. 그러나 “성도의 표지”가 교회의 권징의 이유가 된다고 볼 때, 세 가지 성도의 표지, 즉 믿음의 고백(종교적 이유), 삶의 모범(윤리적 이유), 성만찬 참여(성례전 문제)는 다양한 죄목을 크게 분류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도표 4를 통하여 당시의 출교 이유들을 살펴보자.

[도표 4]

출교 이유	1555	1556	총합
신성모독	22	17	39
구교 신앙 및 실천	9	18	27
불순종	0	2	2
가정문제	5	13	18
술취함	3	4	7
출교자가 성만찬에 참여	4	2	6
우상숭배	1	0	1
욕(모독, 험한 말)	3	3	6
결혼 약속 파기	3	1	4
행동문제	1	2	3
이웃간의 갈등	3	1	4
카드 놀이	0	1	1
일부다처	1	1	2
반항	0	2	2
개신교 신앙과 실천	9	21	30
스캔들	1	4	5
성적 방종	19	49	68
노래/춤	2	2	4
미신	0	3	3
불명확한 이유들	0	3	3
돈놀이/금전관계	1	0	1
인종차별	1	2	3
권위에 불복종	4	3	7

위에서 볼 수 있듯이 1555년 출교에서 가장 많은 것은 신성 모독, 성적 방종, 개신교 혹은 구교적 신앙 및 실천 문제, 가정문제들이고, 1556년은 성적 방종, 개신교 혹은 구교적 신앙문제, 신성모독, 가정문제 등의 순이다.

컨시스토리의 사건 처리과정과 출교의 선언을 보면 몇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발견된다. 당시 컨시스토리는 전회원들이 “교회”로서 비교적 공정하고 목회적인 차원에서 활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

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개신교적 신앙과 실천의 지식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교구 목사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윤리적 타락이 문제가 된 이들은 경계와 권고, 권징을 실천했다. 구교적 신앙과 실천과 관련하여 출교된 자들은 단연 여성들이 많아서 전체 출교자수의 남녀 비율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²⁷⁾ 타지방 여행중 꾀박의 두려움 때문에 미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새로운 종교, 즉 개신교적인 교리에 대한 무지에서 구교적 행위를 유지한 경우도 있는데 컨시스토리는 이러한 죄목에 대하여서는 비교적 엄격하게 다루었다. 아마도 개신교의 확실한 정착을 추구하던 당시 개혁자들에게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해벌(회복, Restoration)

출교의 실제와 관련된 좀더 구체적인 사례와 분석을 다음 기회로 미루고 해벌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칼빈의 신학에서 출교가 해제되고 수찬정지와 다른 신분상의 제약을 받았던 출교자의 위치가 회복되는 것은 '회개'에 달려 있었다. 결국 칼빈은 출교와 해벌을 논의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삶의 모범을 유지하지 못한 데 대한 회개를 유도하고, 나머지 교인들에게 타산지석의 기회를 제공하여 거룩한 교인,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는 데 힘쓰도록 장려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출교의 삼중적 목적을 강조하고 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를 짓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지만 죄를 짓고 난 후의 회개는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었다. 중세의 고백성사의 발전도 결국 회개를 구체적으로 촉구하고 회개의 표현을 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한다면, 더 이상 고백성사를 하지 않기로 한 개신교에서의 회개는 사실상 개인적인 신앙의 결단과 행위로서 끝나게 된다.

칼빈은 제네바에서의 출교가 일시적²⁸⁾이라고 하면서 출교는 죄인들

27) 컨시스토리와 여성에 관해서는 저자의 논문 225-230을 참고하시오.

28) 칼빈은 출교는 출교자가 회개의 모습을 보일 때까지 "일시적"(temporary : temporelle 혹은 for a time : ad tempus)으로 출교당하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해벌의 절대 충분 조건이 회개임을 말하고 있다.

을 교회에서 완전히 제하는 anathema와 다르다고 구분한다. 그러나 그는 그의 글을 통하여 출교의 기간이 실제로 어느 정도가 적합한지, 즉 출교된 자가 회개를 할 때까지 무조건적으로 기다릴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출교를 풀어줄 것인지에 대하여는 “죄인이 교회에 와서 회개의 증거를 보일 때 이 증거는 그의 죄를 최대한으로 씻어 버릴 수 있게 된다”²⁹⁾라고 간단히 언급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칼빈은 분명히 회개가 해벌의 결정적인 요인이 됨을 확인하면서도 교회는 회개를 강요하지 말고 “적당함의 원칙”(the rule of moderation)에 근거하여 죄인들을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말고 그들의 회개를 받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네바 시의 해벌에 대하여서는 몬터와 킹턴의 간단한 언급 외에 다른 기록을 찾기 어렵다.³⁰⁾ 여기서 킹턴이 제시한 제네바 시 출교에 관한 기록을 옮겨 보는 것이 좋겠다.

제네바 컨시스토리에 의해 출교를 당한 자들은 열심히, 심지어는 광적으로 다시 성만찬을 받으려고 노력했다. 결국 대부분의 이들은 컨시스토리와 화해하여 세 달 안에, 즉 칼빈의 제네바에서 1년에 네 차례 실시되었던 성만찬 중 한 번을 빠지고 다시 성만찬에 임하게 되었다. 만약 그들이 화해하지 못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가족과 친구, 그리고 재산을 버리고 망명생활을 떠나 그 도시를 완전히 떠나버렸다. 출교는 예외적으로 효과적인 통제기능을 하게 되었다.³¹⁾

위에서 우리는 해벌과 관련하여 네 가지의 중요한 주장, 1) 출교자들은 열정적으로 해벌을 추구했다 2) 출교자 대부분은 컨시스토리를 통하여 해벌되었다. 3) 출교 기간은 평균 3개월 정도였다. 4) 해벌에 실패한 자들은 도시를 떠났다. 몬터와 킹턴의 이러한 결론은 구체적인 자료조사를 통한 결론보다는 컨시스토리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출교의 순기능에 대한 확신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나 보여진다. 실제로 출교에

29) *Institutes*, 4.12.8 ; OS 5, 219.

30) Monter, “The Consistory of Geneva”, 477 ; Kingdon, “Social Control and Political Control in Calvin’s Geneva”, 522.

31) Kingdon, “Social Control and Political Control”, 522.

대한 연구도 부족하지만 해벌에 대한 연구는 더욱 거의 전무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 주장은 별 이의없이 받아들여졌고, 제네바 시를 보다 일사분란한 신정도시로서의 이미지(즉 범죄율이 낮고 죄를 지어도 곧 회개를 하는 그리스도인의 성화가 잘 이루어지는 사회)를 형성하는 데 일조하게 되었다. 필자는 이 연구에 임하면서 이 해벌의 문제야말로 출교의 참 정신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하겠다는 생각과, 해벌은 결국 공식적인 종교(Official religion)와 대중적 종교(popular religion) 사이의 갈등이나 균열 지점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되었다. 필자가 해벌을 연구하면서 초점을 맞추어 본 것은 1) 제네바 시의 출교자들이 열심히 해벌을 추구했는가 2) 컨시스토리는 조속한 해벌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3) 로마 가톨릭과 차이를 이루는 칼빈의 회개에 대한 교리가 해벌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다.

필자의 첫번째 질문은 적어도 1555년과 1556년 회의록의 기록에 의하면 절대적으로 부정적이었다. 간단히 말해서 대부분의 출교자들은 해벌받으려고 컨시스토리를 찾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음의 도표를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도표 5]

전체 출교자수 (1555-1556)	해벌 신청자	결과			
		해벌	잠정적	거절	모름
271	45	29	6	8	2

위에서 보듯이 전체 출교자의 16.6퍼센트만이 해벌 신청을 했고 그 중 10.7퍼센트만이 실제로 해벌되어 성례전의 회복과 사회적인 제약이 풀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지적한 대로 킹턴의 첫번째 주장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주장이었다. (이 점에 대하여 킹턴 교수는 필자와의 개인적인 면담에서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해벌 신청의 저조함은 궁극적으로 출교 기간의 장기화를 의미한다. 킹턴은 3개월이라는 출교 기간이

상당히 일률적으로 적용되었던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년에 네 번 성만찬을 했다고 하여 12 나누기 4라는 간단한 수학적 결론을 내려 성만찬 간격을 3개월이라고 할 수 없었던 것이 제네바 시의 상황이었다. 출교 기간에 관한 한 킹턴의 주장은 나이브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1555년과 1556년의 회의록에서 출교와 해벌의 기록중 어느 한 쪽이 분명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보면 해벌자들의 실제 출교 기간은 아주 다양하며 짧게는 1주로부터 길게는 20개월 이상으로 연장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³²⁾

그렇다면 해벌 요구의 저조성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칼빈의 신학과 관계없이, 또 킹턴의 주장과는 상반되게 제네바 시민들에게 출교는 큰 의미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 중세 때와는 달리 출교의 상태로 지내는 것이 사회적으로 크게 불편하지도, 영적·심리적으로 불안하지도 않은 불감증 상태는 아니었던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필자는 몇가지 가설을 생각해 보았다: 1) 제네바 시민들은 해벌에 대하여 열정이 부족했다. 2) 해벌에 관하여 컨시스토리의 통제가 부족했다 3) 컨시스토리를 통하지 않고도 해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4) 출교의 기간이 지금까지의 연구와는 달리 상당히 길었던 것 같다. 5) 출교자들은 수치와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도시를 떠났다. 6) 신학적인 이유가 있다.

이상의 가설들은 독립적으로 혹은 연합적으로 작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각각의 가설들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번째는 앞서 언급했던 대로 대부분의 제네바 시민들은 해벌에 관하여 무관심 내지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³³⁾

32) 출교 기간에 대한 구체적 사례들은 본인의 논문 258-260에 수록된 도표 15를 참고하시오.

33) 많지는 않지만 몇몇 사람들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벌을 요구하며 컨시스토리를 찾았다. 물론 이들의 동기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 Nicod Goffon은 출교 후 2주 만에 컨시스토리를 찾았다. 그는 더 나은 회개를 할 때까지 출교를 해제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적극적으로 해벌을 위해 애쓴 사람들 중의 하나이다. 이 점에 대하여는 본인의 논문 263-271을 참조하시오.

두 번째로 컨시스토리의 출교자들에 대한 관리의 소극성은 컨시스토리의 출교에 대한 철저한 태도와는 극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외의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그렇다면 출교시에 사람들은 개인적인 회개와 해벌을 위한 노력 외에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했는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컨시스토리는 필요한 경우에는(특별히 교리 문제와 관련하여) 컨시스토리의 구성원이기도 했던 지역 목사들이 구체적인 도움을 주도록 배려하기도 했고, 소수에 해당되지만 컨시스토리는 출교가 장기화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³⁴⁾

세 번째, 즉 컨시스토리가 아닌 다른 기관을 통한 해벌 신청 및 해벌 승낙의 가능성은 이미 베르플리에 형제의 사건이 일단락되어 제네바 시의회가 입장을 분명히 된 상황이므로 극소수의 사람이 이런 경향성을 여전히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는 출교된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제네바 시를 떠났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해벌 신청을 거절당한 사람들 중 이러한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제네바 시가 1556년에 맹세, 신성모독, 저주, 간통에 대한 법을 제정하려고 검토하고 있을 때 텔레몽(Tellemond)이라는 제네바 시민의 이야기에 의하면 샹쥬(Changeou)라는 사람은 만약 그러한 법이 통과되면 제네바 시민의 절반이 도시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는 것이다.³⁵⁾ 이러한 불평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당시 제네바 시민들이 컨시스토리와 시의회를 중심으로 벌이고 있는 새로운 제네바 만들기 작업을 무리한 개혁추진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했을 가능성은 많다. 더욱이 당시 제네바 종교개혁의 중추 세력이었던 칼빈과 프랑스계 이민자 목사들에 대한 제네바 원주민들의 반감의 수위가 결

34) 본인의 논문 271-276. Martin Pegnin(Marthe Pegnin)의 경우, Martin이 해벌을 신청 하러 왔을 때, 컨시스토리의 판결문은 예외적으로 “성만찬이 금지된 것이 오래된 점을 감안하여 우리는 성만찬을 허락할 수 있다. 그러므로 Pegnin은 해벌되었다. (*voyant que y a desja longtemps qu'elle luy a esté desfendue, l'on la luy peut permettre et l'a on linerée. Consistory, XI : 3, 50v.*)

35) *Consistory, XI : 5, 83v, December 3, 1556.*

코 낮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실은 하나의 가능성으로 주장할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학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제네바의 시는 개신교 종교개혁을 지지하고 실천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구체화시키기 시작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수의 평신도들은 개신교의 교리나 개신교도적인 종교생활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갖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달리 말하자면 아직도 로마 가톨릭적인 종교생활의 관습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 사실 중세시대에도 비슷한 문제는 있었다. 고백성사의 단계로서 전통적으로 satisfaction이 absolution을 선행하는 것이었지만 사람들이 absolution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풍조로 인하여 satisfaction 이전에 사유(absolution)를 미리 해주는 편법³⁶⁾이 중세 중반 이후에 일반화되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제4회 라테란 공의회 이후 보편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일년일회 성찬이라는 이전의 습관과, 성찬 참여를 위한 준비에 많은 비중을 두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칼빈식의 잦은 성만찬이 제네바인들에게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세 번째의 이유는 칼빈의 회개 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칼빈은 회개를 중요시하지만 강요된 회개가 아니라 자발적인 회개를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회개를 강요하는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조장하거나, 중세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세상적인 권력의 개입(the medieval use of secular arms)이 성서적으로 옳지 않다는 생각에서 출교자들 스스로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태도는 물론 컨시스토리의 방관적인 자세로 오해되어질 공산의 여지가 있었다.

이상에서 간략히 살펴 본 여러 가지 다양한 추론은 제네바 시의 출교자들이 왜 해벌에는 관심이 부족하였는지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본다. 해벌 신청과 해벌률의 저조함은 결국 제네바 시의 문제거리로

36) 이 점에 대한 루터의 비판은 루터의 *Babylonian Captivity of the Church*에서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루터는 이러한 관행은 회개에 있어서 contrition의 요소를 satisfaction보다 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비판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37) Emile Rivoire and Victor van Berchem, ed., *Les sources du droit du canton de Genève* vol. 3. (Aarau : Sauerländer, 1933), 50 : OS II, 359-361.

등장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557년에 등장한 “성만찬에 관한 법”³⁷⁾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지적하고 새 법으로 이 문제를 다룰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잘못하여 컨시스토리와 시의회의 권징을 받게 되었을 때 6개월 이내에 컨시스토리로 와서 해벌을 신청하지 않으면 시의회로 보내고 시에서 추방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 법은 곳곳에서 칼빈이 주창했던 적당함의 원칙(the rule of moderation)을 적용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 법의 출현은 어느 정도 중세 교회의 강압적인 교회의 모습을 재현하는 듯하여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V. 맺는 말

지금까지 제네바 컨시스토리를 그 설립 배경과 구성원 그리고 출교와 해벌제도의 집행을 통하여 살펴 보았다.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칼빈의 신학이 현실화된 것이었고, 칼빈은 컨시스토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신학이 평신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목회의 현장으로 활용하였다. 흔히 알려진 바로는 칼빈과 컨시스토리는 엄격하고 무섭고 심지어는 잔인하게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었다. 그러나 컨시스토리 회의록을 통하여 발견하는 칼빈이나 컨시스토리는 권징의 과정을 중시하고 출교를 결정하기까지 확실한 증거 확보와 확인을 위하여 시간적 여유를 두는 신중성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적당함의 원칙”을 적용시켜 권징을 통해 죄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만들어야 하지만, 그 과정이 지나치게 엄하거나 처벌이 너무 중하여 죄인들이 낙심하고 신앙을 버리는 일이 없게 되도록 유의했다. 그리고 출교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도록 함으로써 말씀을 통해 성화의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으로 컨시스토리를 통한 출교가 “식초와 기름”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³⁸⁾ 실제로 출교자의 수가 소환자에 비해 극히 낮

38) Robert White, “Oil and Vinegar : Calvin on Church Discipline”,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38 (1985).

은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컨시스토리의 입장을 잘 반영하고 있는 좋은 예가 된다. 이런 점에서 종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엄격하고 정죄의 칼날을 휘두르는 칼빈의 이미지가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³⁹⁾

그 외에도 컨시스토리는 법정의 기능뿐만 아니라 상담, 중재, 교육의 기회를 강화시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회공동체에게 거룩한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구원 받은 자들이 갖추어야 할 삶의 모습을 제시하는 구원론적인 차원을 중시하는 기관이었다. 일반 심방의 시행과 컨시스토리의 역할 강화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의 여지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인간 구원의 위기를 개신교라는 새로운 종교로서 해결해 보고자 했던 종교개혁자 칼빈이 선택한 신학과 목회의 접목장이었음에 틀림없다. 이 기관을 통하여 칼빈은 가장 효과적으로 당시 평신도들과의 만남을 이루었고 그의 신학과 설교의 접점을 찾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제네바 컨시스토리를 일반 사가들처럼 단순한 사회 통제기능으로서 분석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컨시스토리는 제네바 시를 도덕적으로 거둬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에 틀림없지만, 16세기 상황에서 칼빈이 선택한 목회의 중요한 장으로 먼저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목회의 장은 존 녹스가 제네바를 “the perfect school of Christ”라고 격찬한 것이나, 후기 개신교 국가들이 제네바를 중요한 모델로 삼은 것을 보아 대단히 성공적인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39) 최근에 I. John Hessellink 교수는 H. Meeter Center에서 열렸던 콜로퀴움(March 9, 2000)에서 “Calvin : The Theologian of Sweetness”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그의 논문에서 “a kinder and gentler Calvin”의 이미지를 칼빈이 그의 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sweet”이라는 단어와 그 유사어를 연구하면서 증명하고 있다. *Calvin Courier : The Newsletter of the H. Henry Meeter Center for Calvin Studies*, Spring, 2000(25).

The Consistory of Geneva : The Convurgence of Calvin's Theology and Ministry

Lee, Jung—Sook

Part—time Lecturer

Ehw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This article seeks to draw an interrelationship between Calvin's theology and ministry by examining the history of the Consistory of Geneva and its function in terms of excommunication and restoration as derived from the registers of the Genevan Consistory. It begins with a recent concern on the registers of the Consistory of Geneva among Calvin scholars, which became possible through the painstaking serial works of Robert M. Kingdon and his team (transcription of the original registers—publication of the critical edition—translation in English). The Consistory of Geneva was established by Calvin in 1542 and functioned as “a hearing court, as a compulsory counseling service, and as an educational institution.” Calvin's theology on the members and works of the Consistory of Geneva—especially the processes and results of excommunication—demonstrates the discontinuity with the late medieval Catholic church and contemporary Protestant reformers. Calvin's insistence on the inclusion of laity(represented by elders) of the members of the Consistory and the emphasis on listening to the Word of God, and the application of the “rule of moderation” in the process of excommunication proves the point that the Consistory of Geneva was a place that shows how Calvin's theology was applied to the reality of the people's daily lives in the sixteenth century. In contrast to well—organized operation of excommunication, restoration was seemingly not

much of a concern to Calvin and his colleagues until 1557. This article also tries to explicate possible reasons for the low rate of restoration in Calvin's Geneva.

